

북한산성 문화자원을 찾아서

2003년 제작

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서부지소북한산성분소

목 차

1. 북한산성 성문
2. 북한산성 전통사찰에 대해서
3. 북한산성 성벽 대해서
4. 행궁지, 장대 대해서
5. 북한산성의 문화재를 찾아서
6. 총융사선정비 및 북한산승도절목
7. 북한산성 봉우리들을 찾아서
7. 기타 자료들(전설, 기타유물)

1. 성문(13+3=16개)

숙종 37년 축성 당시 대서문, 수문, 서암문(시구문), 북문, 백운동암문, 소동문, 동암문, 대동문, 소남문, 청수동암문, 부왕동 암문, 가사당암문 등 13개의 문을 완성하였으며, 숙종 40년에는 중성 축성때 중성문, 수문, 시구문 등 3개의 문을 추가로 만들어 모두 16개가 있다.

육축을 갖추고 정형의 홍예 형식을 한 대서문(복원), 북문, 대동문(복원), 대성문(복원), 대성문(복원), 대남문(복원), 중성문에는 문루가 있었던 흔적으로 초석이 남아 있으나 나머지 성문은 당초부터 문루가 없었다.

초석을 살펴보면 대서문과 중성문은 원형(○), 북문과 대성문은 단주형(□), 대동문과 대남문은 팔각주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홍예형의 큰 문 6개소에는 대서문과 동일한 구조와 형식을 갖춘 우진각 지붕의 단층 문루가 있었으며, 문루 기둥을 받치는 초석은 다 같이 10개로 구성하여 정면 3칸, 측면 2칸을 이루고 있다. 가운데 초석 4개 사이에는 마루를 설치하였는데 대서문, 대성문의 경우는 나무마루로 대남문은 판석 마루로 복원 하였다.

성문 출입구를 보면 큰 문이나 암문을 불구하고 내측이 외측보다 상당히 높고 넓게 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외부로부터 문짝의 고정부분이나 틈을 보이지 않게 하여 문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문루가 있었던 큰 성문의 출입구를 보면 내측이 외측보다 폭이 약60cm, 높이10cm 가량 크다. 문짝은 성문크기에 관계없이 나무 문을 2개 달아 여닫도록 하였다. 목재 판문에는 앞뒤로 철엽을 썬 화공 등에 대비하였고 안쪽에서 걸어 잠글 수 있게 하였으며, 천장과 바닥에는 고정시설과 함께 빗장인 장군목을 끼울 수 있게 양쪽 벽면에 큰 홈도 파 놓았다.

암문은 적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 상대적으로 작은 출입구를 냈으며, 문루를 세우지 않았고 외부에서 식별되는 시설도 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산성의 지형이 험난하여 암문설치가 적합하며 부왕동 암문, 가사당 암문 등은 높고 험한 능선에 위치하여 초행길에는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비변사등록」 숙종37년 10월 북한산성축성 별단의 내용을 보면 훈련도감은 수문, 북문, 서암문, 백운봉 암문을, 금위영은 용암암문, 소동문, 동암문, 대동문을 어영청은 대서문, 청수동 암문, 부왕동 암문, 가사당 암문, 소남문을 각각 축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가. 대서문(大西門)

해발 150m 높이의 낮은 구릉지에 서쪽을 향하고 있다. 성안 북한동 주민들이 대대로 이용하던 애환이 깃든 문으로 1950년대까지만 해도 나무를 해다 달구지에 싣고 새벽부터 이 문을 통하여 서대문 영천에 내다 팔았다고 한다. 현재 대서문 문루는 일제 말기에 파손된 채 방치되어 오던 것을 1958년 당시 최헌길 경기도지사가 698만 원을 들여 문루를 복원하고 우마차가 겨우 다니던 오솔길을 확장하였다.

육축 위에는 몸을 숨기고 총포를 쏠 수 있는 무루 여장을 전면에 10개 두었는데 일반 성벽의 여장과 달리 한 덩어리의 화강암으로 된 평여장이며 총구가 아래로 향한 근총안을 1개씩 둔 것이 독특하다.

나. 수문(水門)

대서문 아래 중흥 수구에는 폭이 15.5m, 높이 5m에 이르는 큰 규모이나 오래 전에 소멸되어 흔적을 찾을 길이 없고 양편에는 있는 성벽을 보고 위치를 가늠해 볼 뿐이다.

수문의 모양은 폭이 약간 크므로 2,3개의 연속 홍예를 갖춘 교량형으로 만들어 동대문의 옆의 수문이나 홍지문옆의 오간대 수문과 유사했을 것이다. 1915년 8월 대낮의 집중 폭우 때 중성의 수문이 터지면서 밀려온 물의 수압으로 이곳의 수문이 터졌다. 개천에 나가 보면 떠내려온 성돌과 장대석이 가득했다고 한다. 이때 노적봉 기슭의 산사태로 인하여 중흥사 터에 있는 일본군 헌병 부대가 흔적도 없이 유실되고 동장대를 비롯한 여러 건물과 시설들이 붕괴되었다.

다. 서암문(시구문)

수문에서 원효봉으로 오르는 해발 180m 기슭에 위치한 서암문은 성내에서 생긴 시신을 내보내던 문이라 하여 시구문이라 부른다. 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암문 출입구가 네모난 반면 이문은 안팎이 일종의 홍예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대서문과 같이 홍예돌을 역학적으로 조화롭게 쌓은 것이 아니라 장대석을 둥글게 다듬어 올려 놓은 것이다. 서암문은 대서문과 같이 지형이 낮고 험하지 않으므로 방어상 취약지임을 감안 주변 성벽을 고축하고 치(雉)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문과 연결된 기차 모양으로 돌출시켜 접근하는 적을 측면에서도 공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북문

원효봉과 영취봉 사이의 해발 430m 지점의 안부에 홍예 형태의 출구를 갖춘 큰 문으로 축조되었다. 문루는 오래전에 소멸되었다. 더욱이 1988년 큰 비에 육축을 포함한 성벽 약15m가 붕괴되어 성문 자체를 크게 위협하였으나 1993년 부분적인 보수가 이루어졌다. 한편 북한도에는 문루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약간 늦게 건립하였거나 또는 몇 차례 화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 백운동 암문(위문:일제때)

백운대와 만경대 상이의 안부에 있으며 성문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출입구는 네모난 형태이며 문루는 없었으나 문짝은 달았던 흔적은 남아 있다.

이 암문은 백운대 정상을 앞두고 반드시 들러 땀을 식히는 곳인데 약수로 갈증을 풀며 노적봉과 영취봉 사이의 일직선으로 뻗은 계곡을 감상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다.

사) 용암 암문(용암문)

용암봉 기슭 해발 580m 지점에 위치하여 도선사, 북한산장, 노적봉을 연결하며 옛날에는 중흥사, 태고사로 통하는 길목이기도 하였다. 이문도 백운봉암문과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훼손 상태로 아주 유사하다.

한편 부근에는 과거 이 일대 수비를 담당하던 용암사가 있었는데 폐사되어 무너진 탑과 석북이 남아 있으며 지금은 북한산장이 자리하고 있다.

아) 대동문(소동문)

우이동 진달래 능선이 끝나는 해발 54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서문과 같은 큰 문이다. 이 문이 과거 소동문이 맞는다면 금위영이건기비의 내용을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비문을 보면?당초 금위영을 소동문 안에 세웠으나 지세가 높고 비바람이 세어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숙종 41년 보국사아래로 옮겨 지었다.?라는 말이 나온다.

자) 보국문(동암문)

사찰 보국사가 아래에 있었기에 보국문이라고 부렸으며, 해발 567m 높은 지점에 위치하여 정릉을 내려다보고 있다. 옛 지명은 석가령이다.

서울시에서 1993년에 사업비 1억 1200만으로 복원하였다.

차) 대성문(소동문: 예측)

보현봉과 연결된 해발 625m 지점에 위치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이 문은 우선 주변 여건을 검토해 볼 때 그 중요성은 크지 않은 듯하나 규모는 **성문 가운데에서 가장 크다**. 보토헌을 경우하여 경복궁과 행궁을 이어 주는 가장 가깝고 편리한 코스이므로 유사시 임금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큰 문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에서 1992년에 3억 6,200만원으로 복원 완료하였다.

카) 대남문(소남문)

보현봉과 문수봉 사이 해발 663m 높은 곳에 위치한 대남문은 마치 평창동 일대를 긴 팔로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이 색다른 감동을 준다.

이 문은 대동문과 구조가 흡사하다. 육축 위의 마루는 판석으로 깔려 있으며 문루 기둥은 팔각의 장주형으로 세워져 있다. 서울시에서 1991년부터 시작한 북한산성 복원 첫사업으로 대남문 복원 공사를 착수했다.

타) 청수동 암문

청수동 암문은 문수봉과 나한봉 사이의 해발 694m 지점에 위치하여 승가사 뒷산 능선에 있는 비봉과 연결되어 대남문과 부왕동 암문 방향으로 갈라지는 요충지이다.

성문 외부를 관찰하면 문을 구성하는 장대석 위로 성돌을 3단높이로 쌓고 그 위에 다시 여장을 두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문 안쪽에는 성돌을 1단만 쌓아 외측이 내측보다 높게 하여 경사를 이루게 함으로써 방어상 용이하도록 하였다.

파) 부왕동 암문(원각문)

청수동 암문과 대서문의 중간쯤 되는데 해발 521m 지점에 위치하여 좌측계곡으로 내려가면 삼천사와 진관사가 나오고 오른쪽 계곡으로 내려가면 부왕사터가 나온다. ‘

암문 가운데에서 제일 규모가 크며 성문 외부는 독특한 홍예 형태를 취하고 있어 신선한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내부 성돌 틈은 성회로 마무리함으로써 어느 문보다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준다. 한편 주위 100m 구간에는 원형에 가까운 여장이 남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석회와 진흙을 사용한 흔적이 있어 눈길을 끈다.

하) 가사당 암문(국녕문)

부왕동 암문에서 증취봉과 용혈봉을 넘어 의상봉을 향하다 보면 급하게 경사진 내리막길 아래 해발 448m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데 아래 성문을 지키던 국녕사가 있다.

2. 전통사찰(당시 성안사찰 10, 암자 2)

중흥사, 태고사, 용암사, 보국사, 보광사, 부왕사, 원각사, 국녕사, 상운사, 서암사, 진국사, 봉성암, 원효암

| 사찰명 | 위치 | 면적(칸) | 창건주 |
|-----------|-------------------------|-------|--------------|
| 중흥사지(重興寺) | 등안봉 아래 | 136 | 보우 중창 |
| 태고사(太古寺) | 태고대 아래 | 131 | 보우 창건, 성능 중창 |
| 용암사지(龍岩寺) | 일출봉 아래 | 87 | 성능 창건 |
| 보국사지(輔國寺) | 금위영 아래 (이건한 금위영의 위쪽) | 177 | 탁심, 명희 |
| 보광사지(普光寺) | 대성문 아래 | 71 | 운취 |
| 부왕사지(扶旺寺) | 휴암봉 아래 | 111 | 심설 |
| 원각사지(元覺寺) | 증봉 아래 | 74 | 신초 |
| 국녕사(國寧寺) | 의상봉 아래 | 86 | 칭취, 철선 |
| 상운사(祥雲寺) | 영취봉 아래 | 133 | 희수 |
| 서암사지(西岩寺) | 서암문 남쪽 | 133 | 성능 |
| 진국사(鎭國寺) | 노적봉 아래 | 85 | 성능 |
| 봉성암(奉聖菴) | 구암봉 아래 | 25 | 성능 |
| 원효암(元曉庵) | 원효봉 아래 | 10 | 성능 |

가. 중흥사 : 성안 중심지인 노적봉 남쪽 기슭에 위치하며, 뒤쪽은 산으로 둘러싸여 팔을 벌려 안고 있는 모습이며, 전면은 남쪽을 향한 채 높게 위치하여 한눈에 명당터임을 실감할 수 있다. 왼쪽에는 최공전지라 하여 고려 최영장군이 주둔하였다는 전설이 서려 있는 장군봉이 있다.

고려때 창건된 중흥사는 당초 30여 칸의 퇴락한 고찰이었으나 숙종39년 100여 칸의 대찰을 이룬 뒤 팔도의 승군을 총지휘하는 팔도도총섭이 배치된 승군이였다. 1904년 8월 원인 모를 화재로 소실됨. 화재 뒤에 소규모로 재축되어 의병

전쟁이 한창이던 1907년 이래 일본군 헌병 분견소가 배치 되었으며, 1915년 8월의 집중 폭우시 노적봉의 산사태로 마침내 폐허로 변했다.

나. 태고사 : 중흥사의 부속 암자로서, 중흥사 동쪽 가파른 산기슭에 자리함
고려의 고승 원증 국사는 호가 태고 또는 보우로서 동쪽에 태고암을 세우고 기거하면서 설법을 강론하고 학문 연구에 매진하였다. 태고암은 잦은 난으로 황폐된 것을 숙종 39년 승 성능이 131칸으로 중창하며 태고사로 칭하였다. 태고사는 여러 문화유적이 있어 더욱 흥미롭다. 원증국사탑비는 고려 우왕11년(1385)에 세운 것으로 비문은 이색이 썼으며, 보물 제611호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내용은 원증국사의 출생부터 입적에 이르는 내력을 적은 것으로, 비문 가운데에는 이성계가 고려의 신하로서 이 비를 세우는데 참여하였음을 보여 주는?판삼사사 이성계?란 글이 새겨져 있다. 뒤산등성에는 보물 제749호로 지정된 높이 4미터의 화강암 3층석탑이 우아한 자태로 서 있다. 이 탑은 원증국사의 부도로 한국전쟁을 전후한 혼란기에 도굴되어 30여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으며 이때 꼭대기의 보주와 탑신부의 옥개석이 일부 훼손되었다.

다. 부왕사 : 산영루 터 앞에 있는 계곡을 건너 부왕동 암문 방향으로 오르다 보면?청하동문(靑霞洞門)?턱 자가 새겨진 큰 바위 옆을 지나게 된다. 유선대로 여겨지는 바위를 지나 왼쪽으로 산기슭을 오르면 휴암봉의 울창한 숲속에 부왕사 터를 만나게 된다. 부왕사는 여러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깊은 사찰이다. 사찰의 배치가 북향인 점이 특이하나 더할수 없을 만큼 주위가 아늑하여 무릉동원을 방불케한다.

고려시대부터 절이 있었다는 전설이 들리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기 전 백일 동안 기도를 올리던 곳이기도 하다.

부왕사는 숙종 43년 131칸 규모로 창건되었으며, 부왕동 암문 방향으로 조금 오르면 오른쪽으로 북한산 굽당이 나타난다. 북한동 주민들은 3년마다 돈을 염출, 이곳에서 산신제를 정성껏 치르며 마을 무사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라. 보국사 : 보국사 터를 파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보국사는 금위영 아래, 보광사는 대성문 아래, 금위영은 보광사 아래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보국문과 금위영유영사이에 보국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성 수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궁, 창고 등 성내 시설보다 높게 자리잡아 성문과 가까운 산중턱에 건립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 보광사 : 보광사는 대성문 아래에 71칸 규모로 창건되었다는 기록만 전해지고 있다. 보국문에서 대성문 방향으로 산허리에 난 등산로를 따라 걷다 보면 2개의 건물터가 연이어 나타난다. 이곳은 대성문 쪽으로 가까우며 금위영 유영터에서 보면 위쪽이 된다.

바. 용암사 : 북한산장 앞에는 넓은 공간과 함께 물이 늘 풍부한 샘이 있어 예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는데 이곳이 바로 용암사가 있던 자리이다. 용암사는 일출봉 아래에 남향으로 87칸 규모로 아담하게 건립되었으나 오래 전에 없어지고, 현재 무너진 탑과 함께 법당이 있었던 자리에 석축이 남아 있으며 주위에는 기와조각이 무수히 널려 있다. 용암사는 용암문과 인접하여 이 일대의 수비를 담당하였으며 승법들의 훈련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사. 원각사 : 「북한지」에 의하면 원각사에 대한 설명으로?재증봉근동칠십사간승신초소창?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로써 원각사는 증봉에서 가까운 동쪽에 스님 신초에 의해 74규모로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각사 터는 부왕동 암문에서 가까운 전방에 동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원각사는 위치로 보아 부왕동 암문 일대의 수비를 담당할 듯하나 오래 전에 소멸되어 그 유래를 알 수 없다.

아. 진국사(鎭國寺) : 노적봉 서쪽 기슭의 작은 능선 안에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다. 중성문을 지나 왼편 산기슭을 조금만 오르면 노적사라는 절이 보인다.

진국사는 승 성능에 의해 85칸 규모로 창건된 뒤 오래전에 소멸 되었으며, 지금 보는 노적사는 1960년대 이후 새로 지은 것이다. 아무도 중성문을 방어하는 기능으로 창건한 것 같다.

자. 궁녕사 : 중성문 조금 못미쳐 오른쪽으로 의상봉을 바라보며 가사당 암문으로 오르다 보면 거대한 암벽 밑에 자리한 궁녕사가 있다. 이절은 당시 86칸의 아담한 규모였으나 오래 전에 소멸되고 30여년 전에 지은 가건물 형태의 암자가 같은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 왔다. 하지만 1991년 10월 화재로 소실된 뒤 지금은 불탄 법당터에 천막을 쳐 놓고 그안에 부처를 모시고 있는 실정이다. 궁녕사는 위치로 보아 절 뒤쪽에 있는 가사당 암문(속칭 궁녕문) 일대의 수비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차. 상운사 : 상운사는 영취봉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종 2년 133칸 규모로 창건된 이루 순조 13년 중창되었으며 고종 원년에 극락전을 중건하는 등 산

성안에서 큰 절이었다. 한국전쟁 때 대부분 소실되었으나 그 뒤 대웅전과 삼성각, 종각, 요사를 건립하여 제법 절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카. 서암사 : 수구문 안에 133칸 규모로 창건되었으며, 처음에는 민지사라 불렀었다. 수구문 안에 민공유서라 하여 고려 문인공 민지가 살던 터와 민지암이라고 부르던 바위가 있었다고 한다. 서암사는 수문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문 일대의 수비와 서암문을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

타. 봉성암 : 태고사 뒤쪽 산중턱에 자리하고 있으며 태고사, 진국사, 원효암과 함께 승 성능에 의해 창건되었다. 창건당시 25칸이었고 철종 11년 중수한 바 있었으나 1918년 강제 폐사된 뒤 태고사에 합병되기도 하였다. 봉성암은 한국전쟁 때에 소실되었다고 하며, 지금 보이는 10평정도의 가건물은 30여전에 지은 것이다.

암자 초입에는 보연당 부도가 있고 뒤쪽에는 성능의 사리탑으로 전해지고 있는 부도가 서 있으며, 뜰에는 네모난 화강암으로 만든 정방형의 우물이 남아 있어 눈길을 끈다.

파. 원효암 : 서암문과 원효봉 사이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가 좌선했다는 원효대가 부근에 있다.

원효암은 영조 10년에 비록 10칸 규모의 작은 암자로 창건되었으나 의상봉과 마주하고 있다. 이절은 1935년 한때 소실된 뒤 중건되었다가 다시 한국전쟁때 소실되는 비운을 당하였으나 새로이 금당과 산신각, 요사가 조출하게 건립되어 노거수 밑에 감추어져 있다.

성밖의 전통사찰들

가) 신혈사 : 고려 성종 때 여철이 창건. 고려 현종이 어린시절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숨어 살아온 신혈사는 비봉 북쪽에 있었다.

나) 향림사 : 경술년의 난과 거란의 침입때 이 일대 지리에 밝은 현종은 개성에 있던 고려 태조의 재궁(임궁의 관)을 비봉 남쪽 향림사로 일시 옮긴 적이 있었다. 현재 향림당 자리

다) 승가사 : 비봉 동쪽에 승가봉 남쪽에 있다. 신라 경덕왕 때 수태 창건. 고려 시대에 여러 왕들이 참배하였던 절로, 승가굴에 당나라 때의 고승 승가대사의 석상을 안치하고 있으며, 거대한 암벽에 조각된 5미터 높이의 마애 석가여래 좌상이 있다.

라) 삼천사(三千寺) : 북한산성의 소남문 밖 삼천동에 있다. 신라시대 원효 창건. 고려 현종 때에 초대 현화사 주지를 지낸 대지국사 법경이 주석하였던 곳이다. 옛 절 경내에 대지국사 탑비가 있었으나 현재는 비신은 없고 귀부와 가침석 등만 남아 있다. 문화재로 마애 여래입상이 있다.

마) 진관사 : 북한산 삼천동에 있다. 현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지역. 고려 현종 2년(1011) 진관조사가 창건.

바) 문수사 : 북한산 문수봉 아래에 있다. 고려 예종4년 탄연이 창건. 이곳 문수굴에 돌로 조성한 문수보살, 옥으로조성한 지장보살, 금으로 도금한 관음 보살이 있어 삼성굴이라고도 하였으며, 또 이와 함께 오백나한의 석상이 안치되어 모두 현존하지 않는다.

사) 도선사 : 만경대 동쪽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현 우이동 관내. 신라 경문왕 2년(862) 도선국사가 창건하였다.

아) 화계사 : 북한산성의 대동문 밖 수유동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 증종17년(1522), 신월선사가 창건. 그 전신은 고려 광종때 탄문?법인이 창건한 보덕암으로 삼각산 부어동에 있었던 암자였는데, 증종때 이곳으로 이것하였다.

3. 성벽

가. 체성

북한산성은 6년 동안의 도성 수축 경험을 바탕으로 재래의 축성술을 과감히 탈피하여 근대적 축성 기술을 완성시킨 작품이다. 체성을 살펴보면 예전과 달리 성돌을 크고 네모 반듯하게 뜨고 모서리를 잘 다듬어 정방형 또는 장방형 쌓기를 하므로써 축성 기술의 높은 수준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체성의 길이는 총 7,620보로 1보가 약1.25m에 해당되므로 약 9.5km에 이른다. 축성은 지형 조건을 적절히 살려서 고축, 반축, 반반축, 지축여장으로 나누며, 평지는 고축(3.6-4.3m) 능선은 반축, 반반축 지축여장은 산정상 일대는

체성 없이 여장만 쌓았다. 훈련도감에서 담당하던 수문 북측에서 용암봉까지 2,292보를 살펴보면 수문에서 서암문, 북문에서 영취봉 기슭까지의 성벽은 상당히 견고하게 고축하였다.

수문에서 서암문까지의 약300m 구간은 적의 침투 예상로인 서북쪽을 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 비교적 평탄하므로 4m이상으로 고축하고 정방형과 장방형 쌓기가 혼합된 형태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서암문에서 원효봉을 거쳐 북문까지와 영취봉에서 백운대, 만경대, 용암봉에 이르는 구간은 대부분 고지에 다 급경사지로 반축이나 지축여장으로 축조하였고 영취봉, 백운대 등 고봉의 절벽 구간에는 쌓지 못한 곳이 많다.

금위영에서 담당하던 용암봉 남측에서 보현봉까지 2,821보를 답사해 보면 해발 400m 이상의 능선을 따라 쌓았는데 높이가 1, 2m에 불과한 장방형 쌓기를 주로 하였으나 여러 곳에 치(稚)를 둔 것이 특생이다. 어영청에서 쌓은 보현봉부터 수문 남측까지 2,507보는 문수봉, 나한봉, 용혈봉, 용출봉, 의상봉 등 험난한 암릉이 많기에 다른 군문보다 지축 여장을 쌓은 곳이 현격히 많은 것으로 볼때 축성에 참여한 백성들의 고통을 가히 짐작할 만하다.

한편, 대서문에서 수문에 이르는 구간을 보면 잘 다듬은 석재로 층을 이루어 정교하게 정방형 쌓기를 하였는데 전혀 틈을 보이지 않고, 성돌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수 없는 무사석을 사용하여 평균 4m 이상 고축하는 등 규모가 상당히 웅장하여 북한산성의 진수를 보여준다.

나. 여장

체성 위에는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공격도 하기 위하여 낮게 담장처럼 쌓은 구조물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여장이라고 하며 성첩, 여담, 성가퀴 등으로도 부른다. 여장은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근·원총안을 갖추고 있기에 여장 없는 성곽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높이는 대부분 1m 안팎으로 평상시 군사가 지키고 있을 때에는 가슴 윗부분은 여장 위로 드러나 관측을 용이하게 하나 적이 침투했을 때에는 여장 뒤에 몸을 감추고 타구나 총안을 통해 공격하게 된다.

「비변사등록」에 의하면 삼군문에서 총2,807첩의 여장을 쌓았는데 훈련도감에서 704첩, 금위영에서 1,107첩, 어영청에서 986첩을 담당하였다. 대성문과 중성문의 육축 위에 설치한 문루 여장을 보면 화강암을 평탄하게 다듬어 1개의 총안을 설치한 반면, 일반 성벽에서 넓적한 막돌로 쌓고 타마다 총안을 3개씩 두었는데 중앙에는 근총안을 두고 양쪽에는 원총안을 두었다.

다. 치성(곡성)

길게 뻗은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가끔 유별나게 외부로 돌출시켜쌓은 곳을 보게 된다. 이런 형태의 성벽 안에서는 건물터 흔적과 부서진 기와조각들이 어김없이 발견된다.

적의 접근을 초기에 관측하고 전투할 때 접근한 적을 정면 또는 측면에서 격퇴시킬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돌출시켜 내쌓은 구조물을 치 또는 치성, 곡성이라 한다.

4. 행궁지

행궁이란 왕이 전란시 몸을 피하여 임시로 거처하는 별궁으로 이궁이라도 하는데 북한산성의 행궁은 상원봉 자락에 터를 잡았다. 북한행궁의 규모는 내전과 외전을 합하여 120여칸에 이르렀다. 내전은 좌우 상방 각2칸, 대청 6칸, 사면퇴 18칸을 합한 28칸의 정전말고도 부속 건물이 35칸과 33칸의 부속 건물로 구성된 비교적 웅장한 모습이었다. 현재 행궁터는 경리청상창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오고 있으나, 정확한 위치는 남서쪽으로 상원봉을 향해 100m 가량 올라가야 한다.

내당은 왕과 왕비의 침실로 쓰기 위한 용도로서 크기와 구조는 외전의 정당과 같은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건축하였다. 외전이 있었던 곳은 수해로 지반이 대부분 유실되었으나 내전이 있었던 지역은 기단석과 계단, 주춧돌등이 뚜렷이 남아 있어 당시 내당과 행각의 배치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건립된 뒤 300년 가까이 보존되던 행궁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80년전인 1915년에 막을 내리게 된다. 역대 왕 가운데 북한산성을 찾은 분은 숙종과 영조였다. 영조는 36년 8월 대남문을 거쳐 행궁에 들러 성을 지킬 방도를 의논하였으며 옛날 쓰던 요, 돛자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잘 간직하도록 당부하였다 한다.

5. 유영지(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가. 훈련도감 유영

노적봉의 거대한 암벽 밑에 자리하고 있으며 뒤에는 북장대가 있고 앞에는 너른 공간 아래로 증성문이 위치하고 있다. 주위를 살펴보면 완벽하게 남아 있

는 연못 깨끗하게 보존된 기단과 주춧돌 등이 방금 전까지 건물이 있었던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며, 주위의 수목도 울창하여 늘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감돈다.

나. 금위영 유영

어영청 유영터에서 계곡을 따라 10분 정도 내려가면 밀집된 많은 건물터가 발견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개울 옆으로 거대한 석축과 함께 온갖 잡풀로 뒤덮인 넓은 터가 바로 금위영 유영터이다.

현재 지방유형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는 금위영이건기비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금위영 유영터임을 증명하고 있다.

숙종41년(1715)도제조 이이명이 건립한 금위영이건기비에서는 다음과 같이 북한산성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숙종 37년 4월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에 백제 고성을 고쳐 쌓도록 명하였다. 각 지점에 병영을 두어 양곡을 저장하고 무기를 비축함으로써 후일 국가 위급시에 도성민과 함께 이 천혜의 요새를 지킬 것이다.

그해 10월에 축성을 완료하였는데, 금위영사를 비롯하여 용암봉 동남쪽으로부터 보현봉까지 체성 2,821보와 1,065개의 성첩, 문루를 갖춘 소동문과 대동문, 암문 2개를 두었으며, 시단봉에는 장대를 만들고 성랑 60채를 두는 한편 보국사, 보광사, 용암사, 태고사를 관할하에 두었다.

병영과 창고 90여칸을 처음에는 소동문 안에 세웠는데 지세가 높고 바람이 심하여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숙종 41년 3월 보국사 아래로 옮겨 지었다.

다. 어영청 유영

대성문에서 성 안을 살펴보면 가까운 거리에 대성암이 자리하고 있는 꽤 넓은 터가 보인다. 건물터를 살펴보면 가건물 형태의 암자에는 걸맞지 않는 오래된 석축, 주춧돌, 돌담 등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어영청 유영터이다.

6. 선정비군(善政?群), 북한산승도절목

중흥사지 못미쳐서 현 용학사 아래 누각지 옆 장군봉 발치에는 큰 암반이 있는데 그 위에 23개의 선정비가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북한산승도절목의 명목 바위 옆에 무쇠로 만든 비가 서 있었는데 일제때 무기를 만든다고 일본인들이 모두 뺏어갔다 한다.

선정비에 보이는 총융청은 1747년(영조23년) 경리청을 폐지하고 그

관원을 총융청에 이속시키면서 북한산성의 수비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총융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거리이다.

- 가. 총융사신공헌애민선정비(總戎使申公櫛愛民善政碑)
- 나. 총융사조공의복영세불망비
- 다. 총융사김공병시청덕선정비
- 라. 총융사이공주철애민선정비
- 마. 총융사이공규철애민선정비
- 바. 총융사유공상량애민선정비
- 사. 총융사이공경순애민선정비
- 아. 총융사김공문근청덕선정비
- 자. 총융사유공기상애민청덕선정비
- 차. 경기사겸선혜당상민공영준청덕선정비
- 카. 총융사박공주수인덕애민선정비
- 타. 총융사홍공재룡애민청덕선정비
- 파. 총융사이공규원청덕선정비
- 하. 총융사김공기후애민청덕선정비
- 하. 무위제조겸도총사민공겸호애민청덕선정비

7. 장대(동장대, 남장대지, 북장대지)

8. 국가문화재(지방문화재)

가. 비봉 (

나. 태고사원증국사탑비 (보물 611호)

고려말 명승인 봉우의 탑비이다. 우왕 11년(1385)에 건립하였다. 전체 높이가 3.42m, 비신높이 2.34m, 너비 1.09m, 두께 22cm, 보물 제611호, 비무은 당대 명신 이색이 짓고 글씨는 당대 명필인 권주가 썼다. 비는 이수와 귀부를 갖춘 모습으로 귀부의 조각은 형식화 되었으며 이수에는 운용문, 연화문이 새겨 있다. 비신 상단에는 원증국사탑명이라는 전자체의 큰 글씨가 있고 그 아래에 당대 명필인 권주가 쓴 해서체의 비문이 있다.

다. 태고사원증국사탑 (보물 749호)

고려말기의 원증국사 보우의 묘탑(높이 4m)이다. 길고 큰 돌로써 방형석단을 넓게 구축하여 탑전을 만들고 그 중앙에 다시 방형의 구획을 마련한 뒤 그 위에 탑을 건립하였다. 이 묘탑의 부분은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나누어져 있다. 기단부는 상·중·하대로 구성하였다. 탑신부는 석종형으로 표면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다. 8각을 이루는 옥개석은 아래부분에 1단의 원형 받침과 함께 16엽의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지붕의 낙수면은 경사가 매우 완만하다. 옥개석 위의 상륜부는 보륜, 보개, 보주로 이루어져 있다.

라. 삼천사 마애 여래 입상(보물 제657호)

바. 승가사 마애 석가여래 좌상 (보물 제1000호)

승가굴속에 안치되어 있는데 승가상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석상은 높이 67cm, 광배 높이 1.3m이며 보물 제 1000호로 지정되어 있다. 승가대사상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데 얼굴은 넓적하면서도 광대뼈가 튀어나와 전형적인 시골할머니같은 인상이다. 오른손은 가슴 앞에서 내장하여 지물을 쥔 모양이고 왼손은 가사자락속에 감추고 있다. 광배는 상에 비하여 훨씬 큰 주행거신 광배로서 머리 뒤의 두광에는 연화문을 새기고 주위는 당초문과 모란문을 둥글게 배치하였다. 신광에도 당초보상하문을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거신광의 테두리에는 전체적으로 불꽃이 타오르는것과 같은 화염문을 새겼다.

- 태고사 부도

9 초석 (산영루터,

10. 《북한지》의 저자 성능(聖能)

북한지 저자 : 고승 성능(聖能) 조선 숙종·영조대의 인물이다.

- 처음의 법명은 성능이었으며, 법호는 계파였다. 성능은 숙종28·29년(1703)에 구례 화엄사의 각황전과 삼존불·사보살이 낙성된 후 숙종이 계파당에게 '자비보조 홍각등계대선사'란 법호를 내려준 교지에 휘를 성능이라 써준 이후 이를 계속 법명으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숙종37년(1711)에 '가의대부팔도도총섭 겸 승대장성능', 숙종39년에, 비지보조해행쌍운국용무애일체종선선교도총섭 겸 팔방도승통 홍각등계국일도대선사 성능이란 교지를 내린 것으로 볼때 성능은 숙종에게

깊은 존경과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당시 불교계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숙종?영조조에 걸쳐 서울 북한산에 주석하고 있다가 영조21년에 본디 머물던 지라산 화엄사로 귀환한 후 얼마 안 되어 입적하였으나 정확한 생몰연는 분명치 않다. 입적 후 화엄사 억만고터에 그의 부도를 세웠다.

경북 예천사람으로서, 본래는 안동군과 예천군 일대에 걸쳐 위허하고 있는 학가산의 불승이었는데, 두에 전남 구례 화엄사의 **고승 벽암 각성** (1575~1660)의 연원인 백암 성총(1631~1700)의 문하에서 3년 동안 수행하여 도를 이룬다.

숙종31년(1705) 통도사 승통의 요청으로 통도사 사리탑을 중수한 바 있다. 숙종 37년 북한산성을 축성할 때 팔방도승통 겸 팔도도총섭이 되어 전국의 승려를 지휘하고, 산성 안 북한치영의 본영인 중흥사에 주석하여 승군을 지휘, 감독하며 북한산성의 축성과 수비에 관한 주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숙종37년 북한산성을 축성할 때부터 영조21년(1745)에 팔도도총섭의 자리를 신임도총섭 서운에게 인계할 때까지 약 30여년간을 산성 안 중흥사 일대에 머물며 산성에 관한 일 이외에도 불사를 크게 일으켜 **중흥사와 태고사**를 중창하였고, **용암사, 서암사, 진국사, 봉성암, 원효암**을 창건하였다.

그의 증조격인 화엄사의 **고승 각성**은 인조 2년 조정에서 남한산성을 쌓을 때, 팔도도총섭에 임명되어 승군을 이끌고 3년간의 축성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국가의 국방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다.